

2014. 11. Vol 231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충청북도의회
<http://assem.cb21.net>

가을의 속도

잘 버려진 한낮 햇살 예각으로 내리쬐힐 때

타오르는 노을 속
가지 담근 화살나무

가을은 그 위에 얹혀
떠나고 있다

쏟
살
쳐
럼



노 영 임 (盧英任)

- 2007년 《조선일보》신춘문예 당선
- 2012년 제1회 현대 충청 신진예술인 선정
- 2013년 한국시조시인협회 신인상 수상
- 시조집 『여자의 서랍』

Contents



단양 온달관광지

고구려의 명장 온달장군과 평강 공주의 전설을 테마로 한 온달전 시관을 비롯하여 온달산성, 온달 동굴 등 명승지를 모아놓은 곳이다.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띄어놓은 풍채를 자랑하는 드라마 세트장이 눈길을 끈다.

- 04 제334회 정례회·제335임시회 주요내용
- 06 제10대 의회 100일 성과
- 08 건의문 채택
- 10 정부·지자체·기업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토론회
- 11 국외연수 사전 연찬회
- 12 각 위원회 활동상황
- 19 주요처리의안
- 22 대집행부 질문·답변
- 24 5분 자유발언
- 28 의정활동 이모저모
- 30 의원논단·의정일기



제334회 정례회

제2회 추경 3조 8,218억 원 확정.... 17개사업 96억 원 삭감

감곡역사 원안설치 · 꽃동네 전액 국비지원 요구도

충청북도의회는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16일간 제 334회 정례회를 열어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6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9월 15일 실시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청취와 「음성 꽃동네 전액 국비지원 및 법 개정 촉구 건의문」,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사 원안설치 촉구 건의문」 채택,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9월 16일~9월 18일까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최병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 16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9일~24일까지 3조

8,248억원이 편성·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도의회는 또 「음성꽃동네 전액 국비지원 촉구 건의문」을 통해 ‘전국구 사회복지시설인 음성꽃동네 시설·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촉구하고 이어, 「감곡역사 원안설치 촉구 건의문」에서는 ‘이천시(장호원)의 민원에 의해 감곡역사의 위치가 변경되어 지역 간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히며 ‘감곡역사 원안설치’를 요구했다.

또한 김양희 의원이 대집행부질문을 실시하여 ‘충북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인사 및 선거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또 임순묵, 엄재창, 박봉순, 김인수, 박우양, 임현경, 이광희, 이의영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해 지역 균형발전 등의 도정 및 의정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충청북도 제2회 추경예산 세부내역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95억원 이 증액된 3조 8,248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927억원 증액된 3조 3,04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268억원이 증액된 5,203억원이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하거나 산출 근거가 불명확한 사업 및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 총 17건에 95억 8,150만원을 삭감하고 세입삭감액 30억 원을 제외한 65억 8,150만원을 예비 비로 편성했다. 이로써 충청북도의 총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165억 4,400만 5천원 증액된 3조 8,218억 1,391만 5천원으로 확정됐다.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회계별	예산안	최종확정액	증감(계수조정)
계	3,824,813,915	3,821,813,915	△3,000,000
일반회계	3,304,533,066	3,301,533,066	△3,000,000
특별회계	520,280,849	520,280,849	—

※ 일반회계에서 삭감한 95억 8,150만원 중 화양교재가설공사 사업비 30억원(세입감액)을 제외한 65억 8,150만원을 예비비로 조정함.

제335회 임시회

청주공항 활성화 · 청주대 · 세명대 대책마련 촉구

충청북도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등 29건의 주요현안 처리

10월 13일~10월 24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 335회 임시회에서는 「청주공항활성화 대책마련 촉구 건 의문」 등 3건의 건의문을 채택하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 한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등 2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개최 첫날인 10월 13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황규 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의 장애인 기업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김인수 의원이 대집행부질 문을 실시해 「도지사 공약이행 및 균형발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박병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 100년 먹거리 청사진, 낙후 시·군의 당장 먹거리부터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상임위원회별로는 간담회와 현지방문을 실시하며 「충 청북도 농촌특산물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현안을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10월 24일 실시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청주공항활성 화 대책마련 촉구 건의문」, 「청주대학교 정상화 촉구 건 의문」, 「세명대학교 제2캠퍼스 설립추진 철회를 위한 대 책마련 촉구 건의문」을 각각 채택하여 청주공항 활성화 를 위한 기반시설 先투자, 청주대학 정상화의 조속한 대 책마련, 세명대 제2캠퍼스 추진에 대한 엄격한 제한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한 임회무 의원과 장선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 시해 「충청북도의회 청사진립에 대한 필요성」과 「동남택지 개발지구 개발계획 변경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이언구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11월 실시되는 행정사무 감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충실 히 수행할 것」과 「도민의 복지향상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신규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민 위한 열린 의정.... 씬 없이 달려온 100일

의원발의 조례 건수 · 입법 연구활동 등 의정활동 활발히 수행

제10대 충청북도의회 개원과 취임이 100일을 맞았다.

도의회는 그동안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들을 위한 열린 의정을 펼치며 씬 없이 달려왔다.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의정목표로 출발한 도의회는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낮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도정에 반영키 위해 열정을 쏟았다.

제10대 도의회는 지난 7월 7일 개원한 이래 정례회 및 임시회를 3회 실시하며 내실있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례안 19건, 각종 건의문·결의문 9건 등 총 34건의 의안을 처리하였다.

특히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민생관련 의원발의 조례는 같은 기간 제9대 의회 3건에 비해 두배에 달하는 6건에 이르는 것으로 도의회는 도민의 삶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왔다.

또한 조례제정 및 진정·민원처리를 위한 관련기관·단체와의 간담회를 13회 개최하는 등 도민의 의견을 수렴·반영코자 노력한 결과, ‘충주 칠금 부영 단지 내 유치원 활성화 관련 건의’ 등 7건의 민원을 해결하기도 했다.

개원 100일을 맞아 도의회는 “대의정치의 핵심으로서 도민의 참뜻을 알리고 집행기관에 대한 엄정한 감시와 건전한 비판을 자유롭게 할수 있어야 한다”며 “제10대 도의회는 제9대 의회와 달리 대집행부 질문, 5분 자유발언 등 모든 발언을 횡수 제한없이 원칙적으로 허가함으로써 도의원의 의정활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한 도의회는 “도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도정에 반영키 위해 자리를 가리지 않고 찾아가 뵙고, 비판과 꾸지람의 소리도 달게 받아들이면서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배움의 자세로 적극성을 보이는 ‘노력하는 의원상’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간 도의회



의 행보를 소개했다.

이언구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도의회를 아끼고 사랑해 주신 160만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0대 도의회가 개원한 이래 100일 간의 여정에 다소 역경과 고난의 행조가 있으나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거치는 당연한 과정이라 여겨주시고 지금처럼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의 눈빛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면서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생현장 방문 등 호응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제10대 도의회가 100일 동안 남긴 주요성과는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의회는 이 기간 동안 지역 및 정책 현안을 적극 대처하기 위해 ▲도민, 사회단체, 관련 기관 등 간담회 개최 13회 ▲도정 사업장, 민생현장 등 방문 5회 등의 활동을 벌였다.

특히, 충북도립대학 구조개편 및 산학융합지구 오송바이오텍스 건립 등의 점검과 도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장애인체육회 애로사항 청취,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추진상황 점검, 충북야생동물센터 신축 추진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충북체육고등학교 합동훈련장 신축 부지 현장 확인 등은 도의회의 두드러진 활동상이었다.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도 도의회는 발 벗고 나섰다. 도의회는 28일에 걸쳐 3회의 회기를 운영하며 34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조례 19건(의원발의 6), 예산·결산·예비비 6건, 동의·승인 6건, 건의·결의문 3건 등의 활동을 벌였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올바른 도정수행을 위한 견제와 협력 강화에도 힘을 쏟았다. 도의회는 도정 및 교육시책 질문 2명, 5분 자유발언 21명, 주요 도정 현장 확인 5회, 서면 질문 35건 등을 처리했다.

또 3건의 지역현안 건의 및 결의안을 채택 했는데,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 건의안과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사 원안설치 촉구 건의안, 음성꽃동네 전액 국비지원 건의안 등이 그것이다.

또한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운영을 위해 도의회는

▲각종 민원 및 진정처리 7건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1회(2개교 70명) ▲도의회 견학 및 방청(견학 2회 39명, 방청 7회 115명) 등을 열었다.

입법 및 연구활동에도 도의회는 열성을 다하며 의원 연구활동 및 의정 학술연구용역 4건을 연구했다. ▲충북 취약계층 아동실태 및 복지욕구에 관한 조사연구 ▲충북 청소년의 정신건강 현황파악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충북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방안 연구 ▲충북 중·고등학교 성평등 교육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등을 통해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며 실행하는 도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했다.

이외함께 위원회 및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등 의원입법 6건을 처리했다.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이 기간에 처리했다.

제9~10대 의회 의정활동 비교 [기간비교 : 同期(7.1~9.30)]

내 용	9대	10대
회기운영	○ 4회 / 30일 - 정례회 : 1회/ 15일 - 임시회 : 3회/ 15일	○ 3회 / 28일 - 정례회 : 1회/ 16일 - 임시회 : 2회/ 12일
의안처리	○ 20건 - 조례14건(의원발의3) - 예산·결산·예비비4 - 동의·승인2	○ 31건 - 조례19건(의원발의6) - 예산·결산·예비비6 - 동의·승인6
위원회 및 의원발의	○ 3건	○ 6건
지역현안 건의 및 결의안 채택	○ 4건	○ 3건
진정, 민원처리	○ 2건 - 행정 1, 산경 1	○ 7건 - 정책 1, 행정 4, 산업 1, 건설 1
의원연구활동	○ 0	○ 4건
도정 및 교육시책 질문 (대집행부 질문)	○ 0	○ 2명
5분 자유발언	○ 7명	○ 21명
의회견학 및 방청현황	○ 견학 2회 51명 ○ 방청 3회 26명	○ 견학 2회 39명 ○ 방청 7회 115명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 1회 2개교 70명	○ 1회 2개교 70명
전체의원 연찬회 운영	○ 1회	○ 1회
회의록 및 e-book 제작	○ 4회(291~294회)	○ 3회(332~334회)



‘음성꽃동네 전액 국비지원 촉구’ 건의문

지방비 부담 과중한 꽃동네 지원 국비로 대처해야

충북도의회는 9월 30일 사회복지시설인 음성꽃동네에 대한 전액 국비지원과 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국회의장, 국회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달했다.

특히 이번 건의안은 2005년도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비 부담 가중과 함께 ‘전국구 사회복지시설’인 음성 꽃동네의 시설비·운영비에 투입되는 지속적인 지방비 부담액의 증가로 인해 충북의 지방자치단체가 심각한 재정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정부의 시행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로 그동안 꽃동네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은 2001년 16억원에 불과했던 것이 2005년 국고보조사

업의 지방이양의 여파에 따라 2014년 112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더구나 꽃동네 입소자 1912명 중 실제 충북 주민은 19%에 불과하고 81%가 타 시·도에서 전입한 이들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설이 충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외지인을 보살피는데 충북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입소자의 99%가 국가에 복지책임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임을 감안하면 선별적 복지 관점에서 전액 국비지원의 타당하다고 판단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조속한 꽃동네 전액 국비지원을 충청북도의회 명의로 요구하게 됐다.

‘감곡역사 원안설치 촉구’ 건의문

역사 위치 변경으로 지역갈등 조장.... 원안 이행돼야

충북도의회는 9월 16일 청와대와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국회국토교통위원회 등에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사 원안설치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

도의회가 이번에 ‘감곡역사 원안설치 건의안’을 전달하게 된 것은 경기도 이천시 주민과 감곡 주민간에 역사 설치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갈등양상 때문이다.

도의회는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사는 감곡면 왕장리 307-3번지 일원에 설치가 계획되었으나, 이천시(장호원)의 민원에 의해 감곡역사의 위치가 변경되어 지역 간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또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지역 간의 형평성, 교통수요 등 모든 면에서 감곡역사 설치가 합

당한 것임에도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의해 지역민들만 피해를 봐야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정책에 대해 규탄하고, 감곡역사가 원안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촉구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가 감곡역사 원안설치를 촉구하게 된 지역 주민간 갈등양상을 해소하려는 것 외에 더욱 중요한 배경이 있다.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사 이전설치는 역사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과 교통편익증대를 염원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철도수혜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게 때문이다.

도의회는 건의안의 타당성을 내세워 감곡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증대할 계획이다.

**‘세명대 제2캠퍼스 설립 추진 철회 촉구’ 건의문****하남에 제2캠퍼스 세우면 제천 세명대는 ‘속빈강정’**

충청북도의회는 세명대가 하남시에 제2캠퍼스를 설립할 경우 제천지역은 물론 충청북도 차원에서도 막대한 손실과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 관계기관에 설립 철회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를 건의했다.

세명대학교는 10월 현재 세명대 제2캠퍼스 설립을 위한 TF 구성과 MOU체결을 준비하며 적극적인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명대학교 제2캠퍼스를 설립하게 되면 제

천시는 교육·사회·문화·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거점대학의 핵심을 잃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제천지역은 물론 충청북도까지 막대한 손실과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크다는 판단이다.

이에 도의회는 관련법 규정을 정비하여 비수도권 지역에서 과밀 억제권으로의 대학이전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실시하며 지방대학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촉구했다.

‘청주대학교 정상화 촉구’ 건의문 채택**청주대 사태 장기화 김윤배 총장 책임있는 자세 촉구**

충청북도의회는 청주대학교가 지난 8월 29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뒤, 김윤배 총장 및 재단이사진 등의 퇴진을 요구하며 파행이 장기화 되어 학내 사태가 크게 우려됨에 따라 김윤배 총장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또 학생들의 소중한 교육권 보장과 교수, 교직원, 지역사회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파행을 중단하고 학내사태에 대한 조속한 문

제해결을 통하여 학교운영에 대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도의회는 특히 현 사태로 인하여 청주대학교가 약 2개월째 정상적인 수업활동과 학교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의 적지 않은 희생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장이 너무 커지고 있음을 크게 우려하여 청주대학교의 조속한 학교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촉구’ 대정부 건의문**중부권 거점공항 역할 하도록 정부 先 투자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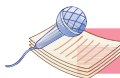
충청북도의회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는 적극적인 시설투자 및 노선개설 등 선(先)투자를 통한 수요창출만이 해결책이라고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왔다.

그러나 10월 8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청주공항 활성화 재기획 용역조사 연구’중간보고에서 ‘주변여건과 장거리 여객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도의회는 ‘국가 주도의 각종 계획과 용역 추진

시 이용객 추이와 향후 발전가능성을 반영해 줄 것’과 ‘현재 자력성장 능력을 갖춘 공항보다는 국가균형발전 및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청주공항에 정부가 앞장서 투자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이 공공성과 책임성을 다하는 국가 기간시설로서 행정수도 관문공항,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사용 위한 조례 개정 필요

건설소방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정책 토론회



△ 건설소방위원회는 10월 24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충청북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병진)는 충북도 내 유해화학물질 관리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안전관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10월 24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청주, 오창 산단 기업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자인 충북대 이상섭 교수는 정책 대안으로 '배출원 상시모니터링 체계, 전문 관리위원회의 활용 그리고 실질적인 대응요령 교육' 등을 제안했다.

환경부 이승준 사무관은 2015년도에 새롭게 시행되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기업체의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한웅 실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에 대한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을 설명하고, "기업체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패널토론 좌장을 맡은 임현경 의원(청주7)은 "계속되는 불산 등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와 각종 화재 및 악취문제 등으로 도민들의 불안감이 확대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한 뒤 "충청북도 유해화학물질의 배출량과 이동량 등의 통계치는 2년이 지난 뒤에나 주민들이 인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 "소규모 유해화학물질 취급 소기업(충북도내 520여 시설 추정)은 환경부 PRTR정보시스템의 고시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며 "유해화학물질 문제는 기업 압박으로만 몰고 갈 것이 아니라 저감시설 등 재정지원과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간 기업비밀로 분류되었던

유해화학물질 문제를 이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며, 충청북도 유해화학물질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충청북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패널로 나선 환경부 김은경 과장은 "지역의 기업과 주민들의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과 사용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지역 안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세웅 바이오환경국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교육을 통해 기업체 생산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시체계구축 등 안전관리와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현 청주소방서장은 "화학사고에 대비해 기업체들과 관련협약을 체결하고, 대응장비를 최근에 보강하였으며, 유사시 효과적인 대응으로 주민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균 충청리뷰 기사는 국내·외 화학물질유출 사고 사례 등을 예로 들으며, "실존하는 위험에 대한 조사와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충청북도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외연수 기존관행 벗어나자” 철저한 사전준비

정책복지·교육·건설소방위, 연찬회-간담회 개최

제10대 충청북도의회는 그동안 도의회의 국외연수 방식에서 벗어나 연수의 효과를 높이고 내실 있는 국외연수를 위하여 사전자료 준비 및 연찬의 시간을 갖는 등 철저히 준비했다.

10월 28일부터 7박 9일 동안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박봉순)와 교육위원회(위원장 윤홍창)는 위기아동(학교 폭력, 아동학대, 빈곤아동 등) 보호체계 및 학교 안전교육 환경을 견학하고 우리 도의 학교안전 체계 등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유럽(독일, 네덜란드 등 3개국)으로 공동연수를 실시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병진)는 유럽의 미래지향적인 온실가스(GHG)감축 등 환경정책과 환경보전 관련 시설을 견학하고 친환경 성공사례를 우리 도에 접목하고자 유럽(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4개국)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해외연수가 눈에 띄는 것은 ‘학교안전교육실태 및 아동복지’와 ‘세계적인 친환경 시설의 성공사례 조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실시되었다는 점이다. 의원들은 연수기간 동안 매일 관련 기관을 공식방문하고 견학하는 일정으로 진행해,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우리도에 접목시키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정책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월15일에 사전 공동연찬회를 개최하고 꽃동네대학교 김혜래 교수의 ‘위기 아동에 대한 국내 아동 복지정책과 독일 중심의 유럽 사례’에 대한 강의를 경청한 후 충북어린이 안전체험관과 충북청명학생교육원을 견학하

였다.

이어 10월 22일에는 국외연수를 위한 사전준비 차원에서 봉명중학교에서 실시되는 ‘재난대응안전훈련 화재대피훈련’을 참관하였다.

또,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10월 16일부터 1박 2일간의 자체 연찬회를 갖고 한국교통대학교 연익준 교수와 세명대학교 최진중 교수를 초빙하여 국외연수 전략수립을 위한 자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도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도의회의 해외연수와 달리 제10대 도의회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와 자문을 받는 등 사전 학습시간을 갖고 해외 방문기관과 비교 체험할 수 있는 도내 기관을 방문하는 등 내실 있는 해외연수를 준비하고자 세심하고 철저하게 ‘공부하는 의회’로 대변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도의회는 국외연수 후, 전체의원 간담회 등에서 연수결과를 함께 공유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일하는 의회’를 적극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 정책복지위원회·교육위원회는 10월 15일 2014년도 국외연수에 앞서 연찬회를 실시하고 충청북도어린이안전체험관을 방문해 현황을 듣고 시설을 둘러보았다.



△ 운영위원회는 9월 15일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결산」 및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전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한범)는 제334·335회 회기 중 4차례 운영위원회를 열어 9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했다.

먼저 제334회 정례회에서는 두 차례 운영위원회의를 열어 의회사무처소관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의결하고 9월 30일 개최된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제3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의결했다.

제1차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통해 청소년의회 교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과 충청북도의회 홍보 방안과 불용액 과다 및 예산 집행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제336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여 대집행부질문, 의안심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의 심사를 10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12일간 실시 했다.

그리고 제335회 임시회에서도 2차례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6건을 심사·의결했다.

10월 13일 실시한 제1차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등 3건을 심사·의결하고 11월 24일 의회사무처소관 2014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과 기관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10월 24일 실시한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제336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11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38일간 운영하기로 협의하고 「2014년도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와 대집행부 질문 등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도의회는 동 조례안 의결로 교섭단체 간 창구가 일원화 됨에 따라 도의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정책복지위원회

제334회 정례회 · 제335회 임시회

영구임대주택 생활환경 개선 주문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박봉순)는 제334회 정례회를 맞아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하며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2013년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서는 예산의 면밀한 편성과 투명한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해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과 기금의 재원 확보를 위한 체계적 계획수립 등을 통한 기금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다.

또한 추경예산안 심사는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비(POOL) 5,000만원 등 사업계획 대비 기대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일부사업비를 삭감하고, 추경편성 후 연말까지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당부했다.

특히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재원부담 갈등을 사전협의해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과 장애인공동리 체육관 안전진단 D등급 판정과 관련해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조속한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리고 제335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장선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확정, 연찬회, 해외테마연수 사전 준비를 실시하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10월 22일 개최된 제1차 위원회에서는 11월 정례회에서 실시 예정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총 226건의 감사요구자료 목록을 확정해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또한 빈곤 취약계층(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이 70%이상 거주하고 있는 충북소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을 심사했다.

10월19일~21일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기법 등 직무관련 연찬회를 실시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인 제주보육원을 견학했다. 또 해외테마연수를 대비해 꽃동네 대학교 김혜래 교수를 초청해 국내 아동복지정책과 유럽 사례 등 사전 지식 공유하며 연수효과를 극대화 했다.



△ 정책복지위원회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제주에서 행정사무감사·조사 및 예산안 심사기법에 대한 연찬회를 실시하고 있다.



△ 행정문화위원회는 10월 14일 청주시 오송읍 일원에 위치한 글로벌코스메슈티컬 개발센터 건립 및 침복의료복합단지 부지 매입과 관련해 현지방문을 실시하고 있다.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임희무)는 제334회 정례회 중 위원회 소관 「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세출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임희무 위원장은 제4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과 관련해 “전국 최초로 시행해 충북만의 특별한 축제로 정착되고 있어, 한·중 교류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임재창 의원은 청렴행정을 위한 보상금, 포상금과 관련해 “매년 불용이 반복되는데, 철저한 원인분석과 검토로 공익신고 제도가 조속히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영주 의원은 국비 미교부 사업과 관련해 “청주 장애인스포츠허브 건립 등 국비 미교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중앙정부에 요청해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은희 의원은 인터넷 디지털 방송사업 관련해 “오프라인 신문보다 신속성이 떨어지고 특별한 콘텐츠도 없

다”고 지적하고 “홍보 로드맵을 먼저 작성해서 홍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광옥 의원은 청주공항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 제공사업 등과 관련해 “예산의 불용률이 너무 높다”고 지적하고 “소요경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335회 임시회 중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오송읍 일원과 청남대를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며 빈틈없는 관리를 당부했다.

또 10월 15일 제1차 위원회를 실시해 「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청북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특히, 10월 24일 신수도권의 관문공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하기 위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산업경제위원회

제334회 정례회 · 제335회 임시회

에어로폴리스 · 에코폴리스 사업장 시찰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양섭)는 제334회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충주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출자 및 의무부담 동의안」 등을 심사·의결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9월 16일 실시하는 제1차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했다.

또한, 9월 17일부터 「이들간 2014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하면서, 행사성 예산의 최소화, 투자유치위원회 실질적 개최 등을 지적하고 중국 상하이 사무소 설치에 최선의 노력을 주문했다.

이튿날에는 「충주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출자 및 의무부담 동의안」 심사와 경제자유구역청 및 농업기술원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충청북도의 미래 전략산업인 MRO산업육성, 충주에코폴리스 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그리고 제335회 임시회에서는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 중인 충주 에어로폴리스, 충주 에코폴리스 등의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도정사업장을 방문했다.

10월 14일 열린 제1차 위원회에서는 황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 「201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처리하며 내실 있는 감사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충주 에어로폴리스 사업지구와 충주 에코폴리스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로부터 현황을 듣고 제기되는 각종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10월 17일 영동의 와인연구소, 옥천의 포도연구소, 보은의 대추연구소를 방문해 지역별특화작물 육성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 산업경제위원회가 10월 15일 충주 에코폴리스로 지정된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로부터 현황을 듣고 있다.



△ 건설소방위원회는 9월 17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병진)는 제334회 정례회 기간 중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충청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실시하고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사 원안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위원회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서 사업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9월 17일에 실시한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서는 소외계층 안전확보에 대한 사업에 보다 적극적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안전진단 등급이 낮은 북문119안전센터 및 노후된 북대119 안전센터는 땀집식 처방이 아닌 신축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및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사 원안설치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고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및 충북야생

동물센터 현장을 방문해 현황과 시설을 점검했다.

그리고 335회 임시회 기간 중 북부권의 주요 사업현장에 대한 현지 확인과 공무국외연수 사전준비를 위한 자문위원 간담회,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했다.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은 충주호 수난구조대를 방문해 내수면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하고, 제천지역에 조성된 4대강 사업 현장인 옥순봉 생태공원을 방문해 추진상황과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소방·환경 분야 자문위원들을 초빙해 공무국외연수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했다.

한편, 10월 24일에는 충청북도내 유해화학물질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안전관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유해화학물질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교육위원회

제334회 정례회 · 제335회 임시회

세명대 제2캠퍼스 철회 · 청주대 정상화 촉구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홍창)는 9월 16일 제 334회 정례회 1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및 「충청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폐교재산의 임대 미수납금 문제, 학생야영장 운영 비용, 지방교육채 금리, 교육복지사업 불용액 및 순세 계잉여금 증가, 성인지 결산서 작성 등에 대해 질문하고 교육청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했다.

이어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공사 하도급 문제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보완을 요청했다.

9월 17일 실시한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지원청으로부터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받고 학생 · 학부모의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그리고 제335회 임시회 중인 10월 13일 진천 · 음성혁신 도시에 설립 예정인 (가칭)석장유치원 · 중학교 · 고등학교 설립 부지를 방문해 설명을 듣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어 10월 14일 1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을 심사해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제천 세명대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하남시 제2캠퍼스 설립을 철회하도록 교육부 장관, 충청북도지사, 제천시장 등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세명대학교 제2캠퍼스 설립추진 철회를 위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10월 22일 2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지난 8월 29일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뒤 학사운영 파행이 장기화 되고 있는 청주대학교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교직원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정부 및 청석학원에 촉구하는 「청주대학교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했다.



△ 교육위원회는 10월 13일 진천 · 음성혁신도시 학교설립계획 심의에 앞서 학교 설립 부지를 방문해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9일부터 24일까지 2013년도 충청북도도·도교육청 결산 및 2014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엄재창)는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위원회를 개최해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이 각각 제출한 「2013회계연도 결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는 세입이 3조 8,017억 6,193만 7천 원이며 세출은 3조 4,956억 1,759만 8천 원으로, 3,061억 4,433만 9천 원의 차입잔액이 발생했다. 차입잔액은 이월액 859억 534만 2천 원, 보조금 사용잔액 35억 4,849만 6천 원, 순세계잉여금 2,166억 9,050만 1천 원 등이다.

또한,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는 세입이 2조 4,083억 9,103만 9천 원이며 세출은 2조 1,544억 3,374만 6천 원으로, 2,539억 5,729만 3천 원의 차입잔액이 발생했다. 차입잔액은 이월액 1,673억 9,503만 4천 원, 보조금 사용 잔액 5억 6,732만 2천 원, 순세계잉여금 859억 9,493만 7천 원 등이다.

세출예산 중 불용액이 952억 6,831만 5천 원이나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의 방만한 운영으로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청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95억 4,400만 5천 원이 증액된 3조 8,248억 1,391만 5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927억 1,184만 4천 원 증액된 3조 3,045억 3,306만 6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7종으로 기정예산 보다 268억 3,216만 1천 원을 증액한 5,202억 8,084만 9천 원이다.

예결위원회는 심사에서 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 등 총 17건에 95억 8,150만 원을 삭감하고 화양교재가설 사업비 세입 삭감액 30억 원을 제외한 65억 8,15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로써 충청북도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65억 4,400만 5천 원이 증액된 3조 8,218억 1,391만 5천 원으로 확정됐다.



현장중심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제334회 정례회 · 제335회 임시회

[제334회 정례회]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도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박병진 의원)

- 불합리한 등록규제 사항을 삭제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 최병윤 의원)

- 상위법령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선언적 법령으로 인식되어 관심이 낮은 실정으므로 도 조례를 제정하여 시대에 부합한 효행문화를 장려 촉진하고자 함

충청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 2에 따라 민관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김학철 의원)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운용 및 지원 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충청북도자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박우양 의원)

- 「소비자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운용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이의영 의원)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을 사랑하고 지원하기 위해 운용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은 물론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인증 기업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충청북도내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취업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미래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 분야의 전문화와 업무의 명확화를 위해 현행 조례를 분리하고 자구의 정비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 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지역 과학기술진흥 및 R&D 대응체계 구축 등 능동적 과학기술 진흥정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운용중인 조례를 규제개혁추진단 권고사항 반영과 농업인회관 시설사용 허가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 개정으로 농업인회관 시설사용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충청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인수 의원)

-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 및 금융환경 속에서 도민이 경제 생활을 할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운용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충청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 참여절차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충청북도교육청제주교육원장의 일반직 4급 상당 교육전문직원 직위 승인통보에 따른 교육전문직원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충청북도의회사무처 및 단위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출자 및 의무부담 동의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충청북도가 토지매수, 보상 및 사업비 지출을 위한 대출자금 335억원의 상환을 위해 본 사업의 분양수입금 및 사업부지 신탁에 따른 대출기관의 본 사업 대출채권에 대한 매입확약 의무 부담에 대해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사 원안설치 촉구 건의안

(제안자 : 건설소방위원장)

-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사 이전설치는 역사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과 교통편익증대를 염원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철도수혜 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충청북도의회 명의로 건의안을 제출하고자 함

[제335회 임시회]

충청북도의회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박한범 의원)

- 도의회 입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등으로 입법고문도 위촉할 수 있도록 함

충청북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엄재창 의원)

-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위임 근거 규정 마련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 건축위원의 해임·해촉 규정 신설 등

진천·음성혁신도시 학교 설립 계획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충북 진천·음성혁신도시 개발계획에 의거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일원에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3,500여 세대 입주예정으로서 학교 신설 필요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임순묵 의원)

-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의무조항을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삭제하여 도민이 불필요한 규제에 행위에 제약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함

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안(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상위법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과 관련 충청북도의 주요 교통정책실의를 위한 충청북도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충청북도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윤은희 의원)

- 충청북도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규제로 심의·의결된 사업주의 임금지불서약서 제출 의무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영주 의원)

-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선 하고자 함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신규 위임사무 반영과 상위법령의 개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함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감경하기 위한 규제완화 마련함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글로벌 코스메슈티컬 개발센터 건립에 따른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

2015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이양섭 의원)

- 운용중인 조례를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모호한 조문을 정비함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연철흠 의원)

- 지방계약법 시행령 조문의 오기 정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함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자치법규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도민에게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사항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충청북도 농촌특산물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김학철 의원)

- 운용중인 조례의 내용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내용 중 중복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청주 ○○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건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청주 ○○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타당성 등을 도의회에 승인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충주지역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다양한 특수교육기회 확대와 장거리 통학학생 불편 해소를 위해 공립특수학교 신설 필요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황규철 의원)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도내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조성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건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타당성 등을 도의회에 승인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청주, 보은, 진천교육지원청 및 세종시교육청 중학교 학교군(구) 조정 계획에 따른 개정하고자 함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숙애 의원)

충청북도의회는 교섭단체 간 창구 일원화로 도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또 그 밖에 상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임절차 등 교섭단체 구성에 따라 운영상 필요한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근거를 규정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 선임 또는 교체선임 시,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교체선임 하도록 했다.



충북도 · 도교육청 공약이행 촉구

김 양 희의원 (교육위원회)



청주대 사태 · 선거법 관련

[질문] 학교법인 청석학원의 분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학 한 군데의 문제가 아니라 산하 6개 초 · 중 · 고등학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청주대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답변] 대학은 관련법에 관할청이 교육부로 되어 있습니다. 소관범위와 관련해서 교육감이 개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질문] 선거법 관련하여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는 등 교육감으로서 법정에 드나들고 압수수색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민들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답변] 도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판이 완결되기 전에 구체적으로 사안과 관련하여 언급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청주대 관련

[질문] 개방형 감사관 1차 공모에 응모한 사람들을 불합격시킨 이유와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차에는 적격자가 없다는 선발위원회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문] 개방형 감사관을 언제부터 알게 되고 무슨 일로 알게되었습니까?

[답변] 언제부터 알았는지 기억을 하지는 못하며, 인사권자와 관계가 있는 것이 결격사유가 된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나 그런 규정이 없어 채용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청주대 분규 사태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라고 생각하며, 학내에서 잘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거공약사항 이행 관련

[질문] 이시종 지사의 선거공약 298개 중에 287개를 최종 공약으로 확정했습니다. 거기에는 예산과다, 실효성 미흡 등으로 여러 가지 공약이 제외되었는데 제외된 공약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답변] 선거공약 298개와 타 후보의 공약을 합해 전체 306개를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제외된 27개 공약 중에서 6개는 일반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실제 제외된 것은 21개로 보면 되겠습니다.

[질문] 프로축구단 창단 공약은 민선5기 때도 공약이었다가 폐기하셨지요?

[답변] 프로축구단이 있으면 좋겠다는 강한 희망이 있었는데, 검토를 해본 결과 도비로 추진하기에는 현재 어렵고, 다른 방법이 있을지 축구협회와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부합동평가 관련

[질문] 2014년 정부합동평가 결과 충북도가 9개 평가분야 가운데 5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아서 3년 연속 가등급을 가장 많이 받은 도로 선정되었는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우리도와 시 · 군의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지사께서는 공무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입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과 청람재에 선거캠프 출신 인사로 선거기간에는 선거캠프에서 일을 하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채용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주변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답변] 학사와 재단에 적합한 인재로 평가되어 재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대책 마련 주문

김인수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남부3군 도지사 공약사항 관련

[질문] 민선5기 공약사항 중 남부3군에 추진한 사업과 현재 추진중인 이들 사업 중 민선6기에 연계해 추진하고자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답변] 보은지역의 경우 산업단지 조성지원 사업과 속리산 관광지구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고, 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은 11월부터 착공할 예정이며 민선 6기에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질문] 올해 6·4지방선거 당시 이시종 후보가 남부3군 발전을 위해 공약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답변] 평생복지, 창조경제, 균형발전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각각의 중점과제를 선정해 세부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인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보은 노인회관 건립, 옥천 의료기기산업단지 조성, 대청호 생태습지 지원, 영동 산업단지 조성과 난계 국악체험 등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이전 관련

[질문] 2005년 충북도가 농업기술원과 축산위생연구소의 보은 이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도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당초 약속한 기관이 보은군에 이전되지는 않았지만 보은군을 비롯한 남부 지역에 기관과 기업유치 기반을 확대하고 있고 특히 보은의 경우 대추연구소, 스포츠파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충북대학교 분교 보은 설치에 대해 이시종 도지사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답변] 충북대학교의 분교설치 여부는 대학당국이 결정할 사항이며 현재는 검토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 분교설치 문제가 제기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대책 관련

[질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통세액 증대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을 2010년 보통세의 3.1%(160억원)에서 2014년에는 4.5%(238억원)까지 확대했고, 향후 우리도의 재정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확충해 저발전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질문] 낙후 시·군에 농업분야 보조금의 도비 비율 향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 낙후지역 발전·촉진을 위한 국가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도 차원의 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으며 ‘도비보조사업 차등보조 제도’를 대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낙후지역에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현안 및 산업단지 개발 관련

[질문] 보은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속리산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가 필요한데 법주사와 조계종이 소유한 토지 해결문제와 문화재 관람료 지원 방안은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요?

[답변] 케이블카 설치장소, 운영주체 등의 확정에 따라 문화재 관람료의 변동이 있을 경우 법주사, 보은군과 함께 의견을 수렴해 최선의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보은첨단산업단지 개발 문제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현재 조성 중인 1단계 단지조성공사는 내년에 마무리 될 것이며, 2단계 단지조성도 보상을 완료해 곧 착공 될 것입니다. 또한 향후 보은산단은 동부산단과 연계해 보은군 지역의 산업지도를 크게 바꾸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균형 발전을 갈망한다



임 순 목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2010년부터 충주, 제천, 단양군 일원을 대상으로 한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도 도로교통 기반사업에만 치중되고 그 마저도 사업추진 실적이 매우 저조해 북부권 주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통합청주시와 함께 북·남부권의 균형발전 방안 마련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먼저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단양~영동까지 충북을 관통하는 '고속화도로 건설'이 급선무 되어야 하고 그 다음 각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는 각종 사업지원에 최대한의 투자와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첨단도시 계획과 병행해 충북의 각종 기관과 중앙부처의 산하기관을 남·북부권으로 균등 배치하여 교통·교육·문화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업유치 등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연차적으로 적극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에 따라 충북이 전국 최 하위권을 탈피해 중·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균형발전을 통해 충북이 생동감 넘치는 행복한 충북 건설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기초단체 재정 강화를 위한 제언



엄 재 창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이시중 지사께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8월 27일 공동 성명서를 채택해, 중앙정부가 공약사업과 국책사업에 지방재정을 사용해 지방정부 재정난이 더욱 악화됐다고 잘 지적하셨습니다.

하지만 충북도의 공약사업에도 기초자치단체의 재원이 투입되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난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충북도의 2014년도 예산 중 도비와 시·군비로 이루어진 사업예산은 약 5,400여억원이며, 이중 도비는 33%인 1,800여억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9988 행복 나누미사업,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은 광역·기초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대부분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 약속자인 도지사보다 시장·군수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부족한 예산이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사업에 소진되어 정작 자치단체에 꼭 필요한 고유의 사업을 집행할 여력이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특단의 대책마련과 강구를 당부 드립니다.

복지국가 실현은 투명한 행정에서



박 봉 순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충북도 청소년종합진흥원 센터장 임용은 민선5기에서 이시중지사가 보여준 코드인사와 오만행정의 재탕으로 청소년 관련단체와 학계에서 분노와 배신감으로 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선 6기 들어서도 예외 없이 코드인사와 밀실행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번 충청도 청소년종합진흥원 센터장 임용은 원장 인선 후 신입원장이 센터장 채용공고와 면접기준 등을 적합하게 처리했어야 하는데 8월14일 원장과 센터장을 동시에 공고하고, 9월1일 원장임용 당일 센터장 면접을 실시했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고질적 행정 관행이며,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원장의 센터장 채용에 관한 모든 권한을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만큼, 이번 충청도에서 관여한 센터장 채용은 분명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문제는 차후 명명백백히 밝혀 책임을 질 사람 반드시 책임지게 하고, 임용취소와 더불어 재공고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떳떳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는 도지사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늘어나는 농업재해 근본대책 마련을



김인수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집중호우와 폭설, 우박 및 가뭄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연재해 발생은 정상적인 영농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발생한 농업재해의 예를 들면, 지난 6월 10일 저녁에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영동군, 청원군 등에 기습적인 우박으로 이들 지역 농작물에 큰 피해가 났습니다. 피해현황은 우박과 돌풍으로 6개 시·군에 걸쳐 총 974ha의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

했고, 국비·도비 등 총 12억 9천여만원의 재난지원금과 경영안정 영농자재 특별지원금 약 7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러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깊이 이해하시고 농업재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마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농업재해 지원에 대한 예산확보입니다.

둘째, 「농어업재해대책법」에 피해액 전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우리도의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피해액 전체 보상입니다.

셋째, 농가의 재해보험료 지원 등 국·도비 비율 확대 등을 통한 농업재해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남·북부출장소 기능 강화 해야



박우앙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민선 5기에 개칭한 북부·남부출장소의 기능 강화를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 제천·옥천에 출장소를 설치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갖는 북부·남부지역과 함께 하나된 충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피력하였습니다.

북부와 남부출장소는 북부권과 남부권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도와 관련된 민원 업무처리는 물론 낙후된 북부·남부지역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리라는 기대가 컸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본 의원은 현 시점에서 과연 두 곳 출장소가 제 역할을 하며, 당초 설립 목적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출장소의 기능강화는 바로 조직 확대와 예산 편성 및 집행권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남·북부출장소에 첫째,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인력의 확대 배치, 둘째 국고 보조금 등이 포함된 사업예산 편성 및 집행권한의 부여, 셋째 충북도의 지역특화사업 육성 이관, 넷째 농업과 산업 분야 등에 국한된 업무를 보건복지와 문화체육 등으로 확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도심 학생과밀지역 학교신설 시급



임현경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미래의 주역인 어린 학생들은 좋은 교육환경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청주를 중심으로 한 도심지역은 학생 수가 적정기준을 초과해 교육시설 확충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최근 5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충청북도교육청의 ‘초·중학교 학생수용계획’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학생·학부모·교사 모두에게 고통과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중앙투융자심사, 학교설립계획 도의회 제출, 교육부 교부금신청의 절차를 거치려면 대농지구의 과밀학급 편성은 어린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것입니다. 농·산촌학교 살리기, 기숙형중학교 신설, 혁신학교 추진 등의 교육정책도 중요하지만 좋은 시설·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교육정책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기본일 것입니다.

도심지역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신설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의회운영에 아마추어리즘 우려



이 광 희 의원
(교육위원회)

의원의 견제·감시 기능 중 선출직 단체장의 핵심공약을 추진하지 못하게 할 권한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을 찬성·반대할 수 있지만 견제·감시의 단계를 거쳐야 할 일이지 아예 사업포기를 결정하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싹쓸이를 감행한 이번 원구성이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도의원으로서 도의회 활동을 포기하길 강요당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도의회를 두 개의 정당이 함께 합의 운영할 제도적 보완책으로서 '교섭단체조례'를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을 합의할 수 없다는 것은 도의회 운영을 새누리당 혼자서만 해나가겠다는 독선과 패권의 욕망으로만 해석됩니다. 다수이기 때문에 소수당을 지지했던 40% 도민들을 짓밟아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의회는 도민의 권력입니다.

특정 정파와 특정 정당만의 것이 아닙니다. 의회의 합리적 운영이야말로 도민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도의회와 합리적 운영을 위해 노력해주길 촉구합니다.

항공정비사업(MRO) 적극 추진을



장 선 배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이번 추경예산 심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MRO사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각 주체들이 힘을 모아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해당 상임위의 심도 있는 사전심사와 치열한 토론 끝에 원안을 통과시켰습니다만, 예결위에서 항공정비 조성사업비(MRO

사업) 52억 92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의 문제점은 상임위 존중의 도의회 전통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예결위에서 상임위와 다른 의사결정을 할 수는 있지만 상임위를 존중함은 물론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자치단체가 선제적인 기반시설 투자를 통해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하고 민간의 자본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 일반적인 진행과정입니다.

MRO 사업비가 삭감돼 어려움이 늘었습니다만, 집행부는 MRO사업 추진을 한 번 더 점검해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하루 속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와 정치권도 이제는 MRO사업 추진을 위해 충복도와 힘을 합쳐야 하겠습니다. 시작단계에 있는 우리의 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이 잘 추진되도록 협력과 노력을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쌀시장 전면 개방에 따른 대책 마련해야



이 의 영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정부는 내년부터 쌀에 대해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쌀시장 전면개방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18일 쌀 산업 발전대책 발표에서 향후 쌀 관세율 513%를 적용하고 모든 FTA와 TPP에서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쌀 관세율 513% 적용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고, 쌀 시장 개방은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정부가 무조건 쌀 시장 전면 개방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농민들과 협의하고, 우리의 생명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님들은 농민단체와 농정 간담회를 갖고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그중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설명 드리면 자치단체 차원의 농산물 안정기금 확보, 농기계 대화화에 따른 농작업로 확장, 벼 재배 농업인 경영 안정 지원금 확대, 못자리 뱅크 및 친환경 농자재 자부담 완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지원금 확대 등입니다.

낙후 시·군 ‘당장먹거리’ 해결하라



박 병 진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본 의원은 오늘 낙후 시·군 도민들의 한탄과 원성을 민선6기 충북도정에 가감 없이 전하며 엄중하게 도정의 혁신적 전환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낙후 시·군 당장 먹거리 대책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민선6기 충북도정은 ‘도내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구상과 시·군별 특단 대책을 제시하는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수립합니다.
둘째, 낙후 시·군 지역발전기금 조성 비율을 ‘보통

세의 5%이내’에서 ‘10%’로 상향하는 조례 개정입니다. 셋째, 시·군에 대한 도비지원 예산투자비율을 낙후 시·군에 대해서는 50:50으로 상향조정해야 합니다.

넷째, 분권교부세로 지원하였던 시·군 사회복지 예산을 2015년 이후에도 낙후 시·군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을 계속 보전해야 합니다.

다섯째,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를 혁신하는 ‘창조경제 혁신센터’와 같은 정책 사업을 낙후 시·군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설치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낙후 시·군의 혁신적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 수립과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청사건립 필요



임 회 무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독립된 의회청사가 없는 곳은 충북밖에 없습니다. 도의회는 1993년부터 21년간 도청 청사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의회가 쓰고 있는 신관은 공간이 부족해 도청 대회의실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회의실은 모든 도민에게 평등하게 개방돼 있기 때문에 시급히 토론회를 열고자 할 때 대관이 되지 않으면 시일을 늦춰야 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도청도 청사가 부족해 괴산유기농엑스포조직위원회는 시청 앞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으며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은 도청 회의실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코 넓고 호화로운 도의회 청사건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초등학교를 도의회 청사 예상부지로 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와 업무효율성을 가장 먼저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께서는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 도의회 청사건립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동남지구 개발계획 변경 문제점



장 선 배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구역은 청주시 상당구 용정, 용암, 지북, 운동, 방서, 평촌동 일원 205만4천㎡ 규모로 LH공사 충북지역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8월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용암동 동산빌리지 앞 A-5블럭 1만8354㎡의 택지 용도가 당초 연립주택에서 아파트로 바뀌어 25층 이하의 공공임대아파트 440세대가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충북도는 개발계획 변경의 원인으로 정부의 공공주택 확대 정책을 반영했다고 하나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LH가 제출한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해 줌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이제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부족한 것은 보완해야 합니다.

먼저, 타당성이 부족한 개발계획 변경을 당초 계획대로 되돌려 놓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개발계획 변경으로 주변여건이 크게 변화되는 경우,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여야만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개발계획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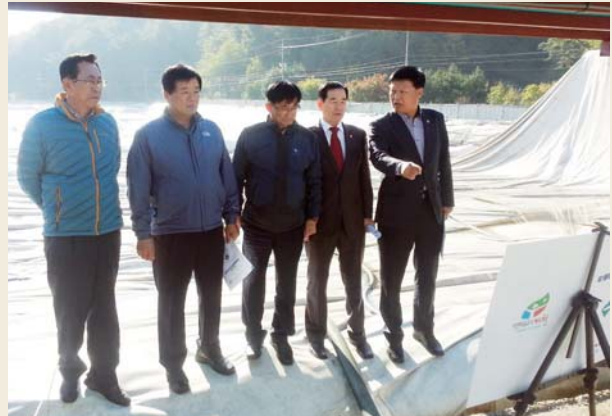


△ 충청북도의회는 10월 24일 충북지방경찰청이 주최한 '치안정책 이해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치안설명회에 참석해 현황을 듣고 112종합상황실 등 주요시설을 견학했다.

▷ 10월 22일 도청 기자회견실에서 이연구 의장, 임병운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광희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이종욱 도의회 대변인이 충청북도의회 청사건립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산업경제위원회는 10월 17일 보은 대추연구소를 방문해 시험재배 현황을 살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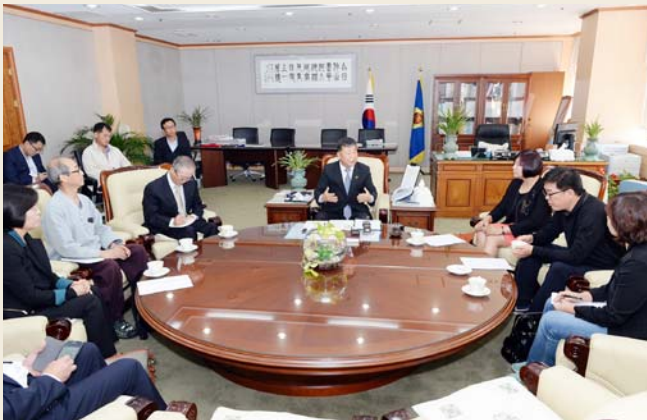
△ 건설소방위원회는 10월 17일 제천 '폐기물최종처리시설'을 방문해 현황을 듣고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 행정문화위원회는 10월 29일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개최된 제95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충청북도 태권도 선수단을 방문해 선전을 기원하며 격려했다.



△ 충청북도의회는 9월 23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추천한 자문위원 15명을 위촉하고 의회의 싱크탱크 역할을 당부했다.



△ 충청북도의회는 10월 15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의정관련 간담회를 실시했다.



△ 충청북도의회는 9월 29일 청남대 회의실에서 전국 시·도의장협의회를 개최해 현안을 협의하고 '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 정책복지위원회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의 연찬회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 산업경제위원회는 10월 16일 농업기술원을 방문하여 현황을 듣고 현안업무를 점검했다.



박 우 양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도민 행복지수 개발 시급하다

6·4지방선거에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어느덧 4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나 스스로 선거에서 제기되었던 공약 중 도민들에게 공감을 얻고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이 무엇인가 고민한 시간이었다.

그중 본 의원은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민 행복지수를 개발함은 물론 농민을 돕기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화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첫째, 도민 행복지수의 개발이다.

행복지수는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 미래에 대한 기대, 실업률, 자부심, 희망, 사랑 등 인간의 행복과 삶의 질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산출된 지표다.

최근 미국 갤럽이 전 세계 138개 나라별로 15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파라과이 국민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파나마 등 대체로 중남미 지역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우리나라 국민이 느끼는 행복감은 하위권인 90위에 그쳤다. 이란, 룩셈부르크, 체코, 카자흐스탄이 우리와 비슷한 실정이었다.

특히 이번 조사는 국민 소득이나 수명, 대학 진학률 등의 경제 지표가 국민이 느끼는 행복감과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줬으며 결국 행복지수는 금전적인 여유뿐 아니라 학교, 직장 등 소속된 조직에 얼마나

큰 만족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처럼 도민에게 적합한 행복지수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려면 충북도가 추구하고 있는 4% 경제달성을 조속히 실현함은 물론 평생복지·균형발전·생명농업·문화·안전과 소통을 포함한 ‘도민행복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로드맵을 만들어 전략적 추진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둘째, 농산물 가격안정화 정책의 지속적 추진이다.

최근 국가간 FTA 체결로 농산물 시장이 지속적으로 개방화됨에 따라 농촌과 농업은 시간이 흐를수록 악화되고 있다. 특히 농산물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야 함에도 이상기온과 농업재해의 지속적 발생으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또한, 왜곡된 유통구조로 중간상인만 이득을 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는 피해를 입는 실정으로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즉, 대형유통업체들이 대량의 농산물을 확보하기 위해 산지 APC 등과 같은 조직의 협조를 받을 경우 그 과정에서의 마진율은 물론, 대형마트 자체 수수료까지 포함한 다음 판매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정상가격 보다 높은 값에 구매할 수밖에 없고 생산자들은 수취가 하락에 허덕이고 있다.



책임감으로 시작하는 의정활동



임순목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설렘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10대 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4개월여의 시간이 흘렀다.

충주를 지역구로 한 도의원이지만 충청북도의 바이오 산업, 균형발전사업, 그리고 도민의 생활안전을 책임지는 소방본부를 소관부서로 둔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충청북도의 모든 도민들을 대상으로 과연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고민의 시간들이었다.

7월에는 '주요업무보고'를 받으며, 상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의 추진상황들을 꼼꼼히 살피며, 앞으로 4년 동안의 의정활동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만만치 않은 사업 내용들을 보고받고 질의하는 동안 도 의원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인지하고, 지역구인 충주지역 뿐만 아니라 북부권, 나아가 충청북도 전체 도민들을 위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다.

지난 9월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도 밝혔듯이 충북은 통합청주시의 출범으로 인해 북부권·청주권·남부권의 불균형적 발전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을 설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북부권이나 남부권을 지역구로 한 도의원이라면 누구나 불균형적 발전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인구·지역·산업·복지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소외된 지역, 혜택을 받는 지역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공공재

의 특성 상 어느 한 쪽으로 편중시킬 수도 없으며, 인구수에 비례해서 시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바탕으로 한 현대 사회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고, 서로 상생하며, 함께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하고, 앞으로의 의정활동 나침반으로 삼을 것이다.

충청북도는 바이오산업, 태양광산업, 그리고 정부합동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도로 선정되는 등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열악한 도세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역동적인 광역단체이다.

도 의원으로서 건강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대안제시 등의 활동을 통해 잘 하고 있는 것을 더욱 더 잘 할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스스로 채찍질하며 나아갈 것이다.

2015년도 본예산 심의 등 준비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 산재해 있다. 충주 출신으로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의원으로서 앞으로 남은 행정사무감사 등 현안을 초선의원의 패기와 열정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도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충청북도의회를 만들 수 있는 초석이 되고자 한다.



“충북도의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 인터넷생중계 : <http://assembtv.cb21.net>

● 트위터 : <http://twitter.com/#!/chungbuk/assem>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cbassembly>

청원안내

■ 청원서 제출방법

- 도의회에 청원을 하려면 도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 제출
- 청원서에는 청원인 주소·성명(성명, 생년월일)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청원 소개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청원서 문의

- 의사담당관실 : 043)220-5151~5155

민원안내

■ 진정서 등 제출

- 진정서는 청원서 외에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인터넷 민원 등을 말함
- 진정서는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진정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 제출방법

- 우 편 :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의사담당관실
- 인터넷 : <http://assemb.cb21.net>의 「진정/민원」에 글쓰기
- 팩 스 : 043) 220-5159

방청안내

■ 방청권 교부

- 의회사무처에서 교부받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하여 신청
- 방청시 방청인이 지켜야 할 사항 준수

■ 방청권 신청

- 의사담당관실 : 043) 220-5155



충청북도의회

<http://assemb.cb21.net>